

# 하나님께서로 돌이키는 회개

느헤미야 9:1-8

## 【인도자를 위한 예화】

1948년 10월 19일, 손양원 목사님의 장남인 고등학생 동인과 차남인 중학생 동신은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좌익 학생들에게 끌려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전향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때 장남 동인은 “너희들이 내 목을 뽑을 수 있을지언정 내 신앙은 뽑을 수 없다. 더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말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전도하다가 나무에 묶였고, 차남 동신도 “형을 살려 주시오!”라고 외치다가 함께 붙잡혔습니다. 곧 죽음의 문턱을 넘게 될 두 형제 중 장남 동인은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마는 너희들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고, 차남 동신은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너희들이 불쌍하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두 형제의 외침은 가해자인 안재선 씨의 가슴에 박혔고, 그를 예수님에게로 완전히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지만 이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안재선 씨는 손 목사님의 양자가 되었고, 결국 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삶을 바꾸고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본문 읽기】 느헤미야 9:1-8절을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고 부서진 예루살렘 성벽과 문들을 40개 구역으로 나누고 인력을 배정해 동시에 보수하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각 구역에 군사로 전환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재건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그 일당의 움직임에 언제든지 대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전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성이라는 장소를 회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정된 생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 가던 중에 모세 시대에서부터 유래된 초막절을 알게 되었고, 칠월 절기에 초막을 지으라는 명령에 따라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 절기를 지켰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으며, 8일째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습니다(8:15-18).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듣고 초막절을 지킨 그달 24일에 백성은 무엇을 했나요?(1-4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여 금식하고, 굶은베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쓰며,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허물과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율법책을 읽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째 달 21일에 풍요와 기쁨의 절기인 초막절 행사를 마치고, 다음 날인 22일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초막절을 마친 후 즉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4일에 다시 모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굶은베 옷을 입고 머리에 흙이나 먼지를 뒤집어 썼으며, 이방인들과 맺었던 관계를 끊어 정결한 모습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했고, 조상들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 자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시간순으로 따져 보면 낮 사분의 일 곧 오전 6~9시에는 율법을 낭독하고, 다른 낮 사분의 일 곧 오전 9~12시에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백성의 갈급한 소망과 순수한 신앙 태도를 보여 줍니다. 백성은 귀환 후 성벽 재건의 어려움을 극복해 낸 다음에야 비로소 예루살렘성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함에 이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깨달은 것을 넘어 죄에 대해 온전히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참회를 넘어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 적용과 나눔 I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영과 마음과 몸과 관계와 환경 등의 상황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이는 '경건의 시간' 곧 QT를 통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정결함을 묵상하고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이 거짓과 미혹으로 매 순간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죄로 가득하고 정결한 삶과는 거리가 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죄인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거짓과 죄악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에 종노릇 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 말씀을 따르는 삶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억지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 가는 기쁨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이어야 합니다.

## 관찰과 묵상 II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경배했나요?(5-8절)**

마땅히 찬양받으실 영원하신 창조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후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배의 원리는 먼저 모든 만물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하고 추악한 존재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원리 안에서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은혜로 정결하게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해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보여 줍니다. 첫째,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셋째,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넷째, 믿음의 조상 아브람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언약을 세울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 적용과 나눔 II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각자 자신의 표현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 1:1)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으로부터 바른 예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잘못된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悔改)라는 한자를 풀어 보면 '매일(每) 자신의 마음(心)을 고쳐먹는(改)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자신을 깊이 살피면서(repent)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의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돌리는 것(return)으로 이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생명 사건(reborn)임을 확신하고,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도록 변화되었음(reform)을 매 순간 인정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내면을 비추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하며 찬양하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